



강진 김명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규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 고흥군, 고품질 쌀 생산 25개 품종 모내기 실시

### 지역에 알맞은 품종 선발 및 농업인 교육장 활용



고흥군은 지난 3일 농업기술센터 내 벼 시험재배 포장에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 선발을 위해 25개 품종에 대해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벼 실증시험 재배 포장은 병해충 예찰 및 농가의 품종 비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남 적응품종에 대해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에 모내기 후 고품질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품종을 찾아 벼 품종 선택의 기초자료 및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병해충 예찰에는 방제구? 무방제구를 구분 설치하고, 예찰기 자체(노벌병 포자제집기, 유아등, 공중포충망 등)를 설치하여 신속한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 관측, 분석으로 농업인들에게 적기 방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과 안전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는 고품질 품종 고급화를 위한 지역적 품종을 선발 육성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한운섭 기자

# ‘녹차미인 보성쌀’ 전남 10대 브랜드 쌀 12년 연속 선정



보성군은 전남도가 주관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등 4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2019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12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녹차미인 보성 쌀은 지난 2006년부터 보성군에서 가장 벼 재배 환경이 적합한 장소를 엄선하여 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유량중자

보급에서부터 육묘·분담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가 GAP인증 등 품질 관리와 기술교육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평당 주수도 70~75주를 심는 일반 쌀농사와는 달리 60주를 기본으로 심어 쌀의 품질을 높이고, 파종도 7~8kg인 관행 재배의 절반 수준인 4kg으로 제한하고 화학비료를 줄여 유기농으로 고품질 친환경 재배단지를 늘리고 있다.

특히, 쌀에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일반쌀(6~8%)보다 낮고, 완전미율도 96%이상으로 적기수확 및 최신키 저온 저장·건조·도정으로 연중 햅쌀의 맛을 유지시키고

있다. 보성녹차미인쌀은 급격한 품종 갱신보다는 안정적인 맛을 위해 12년간 호품종벼를 사용해 왔다. 호품벼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일반 쌀에 비해 맛이 월등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보성녹차미인쌀 단지 대표 안중후는 "오늘의 영광은 계획영농을 실천하고 적기 방제, 적정 시비 등 농가의 철저한 노력이 소비자 신뢰로 구축된 결과"라면서 "12년 연속 수상으로 보성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나갈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 광양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포기한 적 없다

### 국립공원지정, 지역 모두의 이해와 공유 시간 필요

광양시는 최근 백운산지킴이협의회에서 발표한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포기와 관련하여 결코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백운산이 광양시와 구례군에 걸쳐있고 구례군의 격렬한 반대와 백운산을 생활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로쇠 채취 농가 등 일부 시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

여 주민홍보 및 이해와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간을 갖고 지역민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유지였던 백운산 학술림 소유권 이전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였으나, 최근 국무조정실 중재로 기획재정부에서 소유권 이전

불가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공원지정 문제만 남게 되었다.

이에 광양시는 주민들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약초, 고로쇠 채취 활동 제약과 사유림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 땅값 하락은 물론,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현재보다 많은 불이익이 따를 것을 우려함에 따라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위한 상호 공존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순천시는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실무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이달부터 심화과정을 진행하며 본격 운영한다.

순천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기초과정(입문·창업), 심화과정(역량강화·맞춤형교육), 강사양성과정, 청소년협동학교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초과정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참여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성공사례, 창업 트렌드 분석과 사업화 전략 등 입문과 창업 중심으로 진행됐다.

심화과정은 6월 중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순천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희망자는 이메일과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지역경제과(061-749-5809)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순천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 10년 연속 일자리 평가 수상 영예



순천시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미리 공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민선7기 허석 순천시장의 '더 넉넉한 경제도시' 실현을 목

표로 적극적인 일자리 행정 추진 결과가 평가에 반영된 것이다. 주요 실적은 호남권 최대의 창업보육센터 구축을 위한 창업기반 조성, 청년회사로 프로젝트 등 민간취업 연계 사업과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 근로자 임차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한 청춘창고는 청년 창업·창직의 전국 우수사례로, 아랫장 아시장은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 일자

리 창출의 공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일자리 대상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로 진행됐다. 순천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58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순천시는 내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을 받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영광군-대마산단 입주 기업체, 인구감소 극복 업무협약

영광군은 지난 3일 대마산단 입주 기업체인 (주)시그넷이비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 (주)시그넷이비에는 근무 인원이 70명으로 대마산단 입주 기업체 중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영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체 인구교육을 지원하고 인구 늘리기 우수시책 추진 기업체 홍보 및

영광군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주)시그넷이비 기업은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참여, 신규직원 채용 시 영광군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와 관내 정착 유도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인구문제 극복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달 42개 군 기관사회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대상기관을 읍면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와 임직원 수 5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되어 소속 직원들의 지역 내 정착과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기업체와도 인구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